

“투표하고 놀러가요”... ‘택배 없는 날’ 웃은 노동자들

본투표일 물류 플랫폼 배송 중단 어제 참정권 보장 위한 휴일 제공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정 못받아 “지속적으로 투표권 보장 받기를”

“드디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갈 계획이에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홍원희(50)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가족들과 함께 동림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 A물류 플랫폼에서 택배기사로 8년째 근무하는 홍씨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위한’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이는 주요 물류 플랫폼들이 이번 대선 본투표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홍씨는 “모든 택배 노동자가 같은 날 휴무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에는 선거 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왔다”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우체국택배 등 국내 주요 물류 플랫폼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말 본투표 당일 배송을 멈출 것을 결정했다. 주요 택배사들의 움직임에 쿠광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간 배송 중단을 공식화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제1투표소에서 택배기사 홍원희씨가 투표를 마친 뒤 인증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택배 노조와 정치권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따른 것으로, 20대 대선 당시 투표일에도 정상 근무를 소화했던 택배 기사들은 ‘택배 없는 날’ 지정에 따라 이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동료들은 투표를 마친 뒤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모두 이번 휴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마음이 맞는 동료들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택배 기사들을 보면, 업무 중 시간적 여유가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홍씨와 같은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표일 유급 휴무를 비롯해 휴가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형편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과로 등 산업재해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다. 기본급이 없고 건당 700~1000원가량이 지급되는 급여 구조상 그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일터로 향해야만 한다.

홍씨는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우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다”며 “4년 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요구’에 따라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가 금지돼 있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일은 물론이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표류하던 노란봉투법(노동법 제2·3조 개정안)이 대선 이후 탄력을 받아 재추진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홍씨는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노동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고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장애인도 동등한 투표권 보장”...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표소 점검

참정권 보장 현장 점검 나서 투표소 접근성 여전히 미흡

“투표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내 투표소 곳곳을 돌며 접근성, 보조지

원 체계 등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들은 매 선거마다 현장을 돌며 임시 기표소 설치 위치, 장애인 안내문 비치 여부, 수어통역 등 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임시 기표소가 민원인 통행로와 겹쳐 비밀 투표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해당 위치가 개선돼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투표소의

접근성 등 환경이 개선된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내 대부분의 투표소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형국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이 없는 경우가 있고, 도착해도 장애인 보조 인력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아 해매는 경우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잘못 찍었다” 본투표일 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광주광역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선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산수2동 제1투표소에서 주민 A(60)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지산1

동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 B씨도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표관리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